

국내 최대 조달박람회 中企 450곳 참가... “수출 계약 100만弗 넘을듯”

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 개막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상하수도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나라장터가 국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엑스포를 통해 민간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이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만난 박상민 삼진정밀 영업부 담당은 “전시회 기간 내내 미팅 일정이 ‘빡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진정밀은 상하수도 밸브 제조업체다. 상하수도 밸브 매출이 꾸준한 가운데 석유화학플랜트 및 발전소 등에 들어가는 특수밸브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해왔지만 영업망을 넓히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하면서 특수밸브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공공조달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시장 곳곳이 참관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내 유일의 조달 전시회다. ◆역대 최대 규모 조달청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 2021	
일시	9월 29일(수)~10월 1일(금)
장소	경기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
전시품목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물품 다수 공급 계약(MAS) 물품 신기술 인증제품 등 (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건설환경관 기계장차관 안전제품관 창업벤처관)
제품전시관	15개
참가기업	450개

고양 킨텍스서 역대 최대 규모 17개국 해외 바이어와 화상 상담 AI 안내·K방역관 등 선보여 조달청 “해외 판로 적극 지원”

가 주최하고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주관하며,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2000년 시작해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우수 조달기업 450개(858개 부스)가 참가하고 바이어 및 조달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김경우 조달청장(앞쪽 세 번째)이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막을 올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에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 이노블록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일현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김 청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기자

다. 기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440개)보다 참가 기업이 더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우수한 기술력에도 시장 진출 기회가 적었던 혁신 제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안내, 무인 청소차 등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사들이 공공조달 수요를 노리고 전시회에 적극 참여했다는 평가다. 창업벤처관에 자

리집은 ‘핫마인3D’가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직접 설계한 3D프린터를 국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김성호 핫마인3D 대표는 “100% 국산 기술로 조달청의 성능시험 검사 인증을 획득했다”며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문의가 오는 등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바이어와 화상 미팅 참가객의 눈길을 끄는 여러 아이디어 제품이 전시회 개막 첫날부터 큰 주목을 받

았다. 혁신성장에 부스를 마련한 제조업체 세이인은 폭이 좁은 장소에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는 ‘오도발런스 도어’ 기술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얻었다. 로봇 제어 기술로 접이식 문을 설치함으로써 자동문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다. 백진기 세이인 대표는 “장애인을 화장실 문 등 공공 시설에 먼저 설치한 후 상업용 공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K방역관, 디지털서비스관 등 기존에 없던 전시관들도 새로 들어섰다. K방역관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방역 및 바이러스 진단 등을 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이 출품됐다. 의료진용 방호복을 만드는 스타프코리아의 정명훈 대표는 “최근 2년 동안 120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엑스포를 계기로 수출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시관 안쪽에는 스타프코리아처럼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위한 상담장도 마련됐다. 이곳에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미국 철레 등 17개국에서 45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온라인 화상 상담이 진행됐다. 조달청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를 초청하고 우수 조달기업과 1대 1 형식의 상담이 사전에 준비된 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엑스포 행사에서만 참가 기업의 신규 수출 계약 규모가 1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경우 조달청장은 이날 전시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제품의 혁신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라장터 엑스포가 국내 중소기업 혁신 제품의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에스원 ‘블루스캔’ IoT로 건물 관리

학교·공기관·아파트로 서비스 확대 인건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

에스원이 건물 관리 시장 공략의 고삐를 쥘다. 대형 빌딩 위주에서 대학교, 공공기관, 대단지 아파트, 중소형 빌딩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9일 공개한 스마트 건물 관리 솔루션 ‘블루스캔’은 보안 및 건물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제품이다. 건물의 주요 설비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부착해 원격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설비에 부착된 센서가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를 감지한다. 이렇게 파악된 이상 상황은 관제센터에서 관찰한 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전고 에스원 인프라서비스(IS)사업 부장(전무)은 “건물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센서와 관제 그리고 운영 노하우”라며 “블루스캔은 보안업계 1위 기업으로서 44년간 축적한 첨단 센서 기술과 60년 업력의 건물 관리 서비스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 “고객은 전용 앱을 통해 냉난방기, 조명 설비 등의 원격 제어가 가능해 건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원은 블루스캔이 인건비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센서가 24시간 상주하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낮다는 것이다. IoT 기술을 통해 설비 운영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원격 조작이 가능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 전무는 “부동산 투자펀드(리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건물 운영 수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운영비를 절감할수록 투자자 몫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리츠 운용사들의 관심도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에스원은 블루스캔을 앞세워 대형 빌딩뿐 아니라 대학교와 공공기관, 대단지 아파트, 5층 규모 중소형 빌딩 등으로 공략 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건물 관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건물 관리 시장은 올해 27조9000억원에서 2025년 130조68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근 기자



특히 받은 오메가3 ‘제이비케이랩’

“불순물 모두 뺀 순수 오메가3 추출”

“불순물을 모두 뺀 오메가3로만 올해 32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사진)는 “차별화된 추출 방식을 앞세워 오메가3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29일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설립된 제이비케이랩은 오메가3 브랜드 ‘셀메드’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오메가3로 114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세 배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장 대표는 약사 출신으로 ‘아로니아’의 아버지라 불렸다.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아로니아 열매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추출한 후 농축액, 분말, 젤 등을 생산했다. 이들 제품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30대 이상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아로니아로 잘나갔던 회사가 의약품업계 스테디셀러인 오메가3에 눈을 뜬 건 우연한 기회에서였다. 그는 “수많은



대표 상품 브랜드 ‘셀메드’ 출시 2년 만에 매출 3배로

은 오메가3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착유 과정에서 불순물 함유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거의 없다고 봤다”며 “완전히 순수한 오메가3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다”고 돌아왔다.

장 대표는 꾸준한 연구개발(R&D) 끝에 2011년 천연 상태에 가까운 오메가3 추출에 성공했다. 제이비케이랩이 특허를 출원한 노유파(무산화 필수지방산) 방식의 추출 기술이 원천이 됐다. 그는 “노유파의 핵심은 오메가3 추출 과정에서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라고 했다. 그러면서 “착유 온도를 15~20도로 유지하면서 착유하는 압력만 돌출 높이를 10cm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비케이랩은 초창기 한의원에 원료 형태로 오메가3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소비자 반응이 좋아 오메가3 전문 브랜드 ‘셀메드’를 론칭했다. 셀메드 매출은 2019년 59억원에 이어 2020년 114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300억원을 살짝 넘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내년에 제약공장 설비를 완료하고 다양한 형태의 천연의약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며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천연 의약품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주요 공략 시장”이라고 했다.

플랫폼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이비케이랩은 셀메드 브랜드를 이용한 약국 사업도 하고 있다. 가맹점은 ‘셀메드 00약국’이라는 상호명을 쓴다. 윤희은 기자

한국벤처투자-LG유플러스 유망 스타트업 육성 협업

한국벤처투자가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위해 협업하기로 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9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망 벤처기업 정보 공유 및 성장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영역 벤처 펀드 결성 지원 △K유니콘 프로젝트 프로그램 협업 등에 합의했다. 한국벤처투자는 가상·증강현실(VR·AR)과 인공지능(AI) 등 ICT, 데이터, 디지털광고, 그린뉴딜(스마트 빌딩·모빌리티), 콘텐츠 제작 등 LG유플러스가 희망하는 분야의 국내 유망 벤처기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협력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기술 제휴 또는 기술 실증 기회를 줄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가 벤처 펀드 결성을 희망할 경우 한국벤처투자의 ‘멘토 매칭 펀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이 가능한 회사에 대해 기업소개(IR)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맛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효과 빠른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정

생리통에 더 빠른 케어솔루션
게보린소프트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게보린클다운정

근육통 케어 프리미엄 진통제
게보린릴렉스

게보린정·클다운정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300mg + 이소프로부펜 150mg + 우수카페인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후 통증(중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상동맥 질환, 신장질환, 요통, 근육통, 견봉(어깨)염, 타박상, 골절통, 연하증(인후통), 월경통(생리통), 위장통의 진통 2. 오한, 발열 등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식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일반적 약작용 원리: 항염증 효과는 불명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처방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광고심의필: 2021-1595-003800